

“ ‘민감국가’ 지정 철회 정부 적극 나서야”

전주시의회,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온혜정 의원 대표 발의… 지정 배경·영향 분석 통한 대책 마련 등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한국을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 지정 철회를 위한 즉각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실질적 외교 대책 마련 이행도 적극 건의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 호성

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 및 영향 분석과 종합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 협의 및 지원책 마련,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의 해외 협력과 기술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을 건의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이끌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전주시역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 함께장터’ 동참 이어져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지역 기업·연구기관 참여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이끌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전주시역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피치케이이블은 이날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70여 명과 함께 지역 식당을 찾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피치케이이블의 이번 나눔 활동은 시가 추진 중인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피치케이이블이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잔치’에 동참하면서 성사됐다.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소비함으로써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도 앞서 지난 17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따뜻한 점심 한 끼를 함께 나누며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 잔치’에 동참했다.

지난 18일에는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체인 한백글로벌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따뜻한 소비와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시는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소상공인이 연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눔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과 연구기관들도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 함께장터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첫 삽’

2026년 5월까지 232억원 투입
주민 편의시설·복지시설 조성

전주시가 효자4·5동 분동 이후 7년째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온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체할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19일 효자4동 성당 인근 부지(효자동2가 1060번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026년 5월까지 시비 총 232억 원이 투입돼 9,138㎡ 부지 면적에, 연면적 3,5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 3층 3개 동으로 지어지며, 주민자치센터와 육아지원센터,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동은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2동은 2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또,



전주시는 19일 효자4동 성당 인근 부지(효자동2가 1060번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3동은 1층 규모의 다목적강당이 자리하게 된다.

여기에 시는 다양한 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 여성·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주차 공간(38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임시청사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겪어온 행정수요 대응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이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맞벌이 부부와 어린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이 입주하게 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동안 임시청사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주민자치 활동이 위축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경기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센터 건립이 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상생의 전주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농민 공익수당 확대… 신청 접수

전주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된다.

아울러 신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등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60만 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 가구에는 농업인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가구 내 구성 농업인이 총 4명일 경우 총 12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4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김욱기 기자

덕진동 지사협, 새내기 대학생 희망나무 장학금 지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옥희)는 지난 19일, 덕진동 주민센터(동장 이미영)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대학 신입생을 위해 ‘희망나무 장학금’ 4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덕진동 취약계층 대학 신입생 9명을 선발하여 각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옥희 덕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희망나무 장학금을 통해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응원하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이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